

고용보장! 일터 괴롭힘 금지! 정년연장! 간부 교육시간 확보!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회사 내 식당 GMO식품 사용 제한! 기본급 123,526원 인상!



지부교섭 속보

07호

2019.06.21(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제시안없이 달랑 10분!

다음주에 임금 빼고 나머지 요구는 바로 합의하자!

충주까지 가서 지부교섭 10분만에 끝!

20일(목) 충주 KDK에서 열린 7차 지부교섭이 사측의 제시안이 없어 10분만에 끝났다. 멀리 충주까지 달려온 교섭위원들은 허무하게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 날 사측은 2개 회사에서 임원급 교섭위원이 참석하지 못해 애초에 제시안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KDK 대표이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사가 잘 되는지 여부가 대한민국 내수의 바로미터다. 내수가 뚝뚝 얼었다.”며 노조의 협조를 부탁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했다. 사용자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 외에는 다음주에 합의하자!

김정태 지부장은 조정신청 들어가기 전에 임금 외에 나머지 요구안은 모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나머지 요구안이 정리되면 임금은 각 지회별로 내려서 지회별 교섭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사실 올해 요구안 중에서 사측이 부담스러울 만한 내용은 간부 유급 교육시간 보장밖에 없다. 일터괴롭힘 금지,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GMO 식품 사용 제한은 사측이 부담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들이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고, 사측이 반대할 이유도 없는 내용이다. 사측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내일이라도 합의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7월 5일 조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그 전까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안을 합의한다면, 7월 중순부터 각 지회별로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여름 휴가 전에 타결할 수 있다. 지부는 다음주 교섭에서 사측이 적극적으로 제시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번주 교섭이 빈손으로 끝난 만큼, 차기 교섭은 의미있는 진전을 만들자는 것이다. 사측이 진정으로 조속한 교섭 타결을 원한다면, 다음주 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는 수준의 내용을 준비하면 된다.

본격적인 집중 투쟁이 시작된다!

금속노조는 6월 25일 중앙교섭 결렬선언, 7월 5일 일괄 조정신청, 8~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7월 하순과 8월 중순에 시기집중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부도 이에 맞춰 지부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만큼 투쟁의 열기도 올라가고 있다. 올 여름 짧고 굵은 투쟁으로 2019년 투쟁 승리하자!

나머지 요구안 합의되면 임금은 지회별 교섭으로 전환!

사 : 지금 다른 회사는 몰라도 우리 회사(KDK)는 상당히 어렵다. 앞에 있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전부 해외로 도망갔다. 그래도 올해만 극복하면 또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협상도 올해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리라 본다. 서로 사측도 양보하고, 노측도 회사 입장 십분 이해하고 원만하게 신속하게 협상이 이뤄져서 빨리 본업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제 여건은 우리 같이 실물경제 하는 사람은 더 피부로 느낀다. 내수는 꿈꿨다. 우리 회사는 여러분이 쓰는 가전제품 회사들이 주 고객인데 소비가 완전히 줄어들었다. 우리 회사가 잘된다 안된다 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대한민국 내수다. 사측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끌어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좋은 협상되도록 하자.

노 : 올해 다 어렵다고 한다. 몇 년 전부터 그랬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경제 체질을 바꿔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말했다. 내수가 안되는 것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노동자들의 임금,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비 진작시켜서 내수경제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잡았는데 정권이 포기한 것 같다. 자본들의 버티기가 성공하지 않았나 한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안된다는 건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드러나고 있다. 일부 영세 가게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몇 안되는 사례를 가지고 호들갑 떠는 것 같다. 지역의 사용자도 바뀌어야 한다. 내수 살리려면 지금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업이 돈을 벌어야 노동자도 산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을 풀어서 내수 진작시켜야 한다. 그 돈은 노동자들이 소비하면 결국 다시 기업으로 들어간다. 올해 교섭 빨리 마무리하는 것 동의한다. 오늘로 교섭하면서 전체 사업장 한번 다 돌았다. 임금 빼고는 오늘 다 털었으면 했다. 근데 사전에 확인해보니 제시안이 준비 안된 걸로 들었다. 금속에서 다음주 중앙교섭 결렬선언할 것 같다. 7월 15일부터 쟁의권 발동할텐데 지부교섭에서 임금 빼고 나머지는 조정 들어가기 전에 다 털었으면 좋겠다. 임금은 사업장마다 어렵다고 하니, 사업장으로 내려보내서 7월 중순 부터는 사업장별로 임금교섭을 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모여서 마무리하는 교섭을 했으면 한다. 여름 휴가 전에 모든 걸 끝냈으면 좋겠다는게 우리 입장이다.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 회사가 부담스럽지 않으면 조합 요구안 수용하고 다음 교섭부터는 각 지회별 교섭으로 돌렸으면 하는 제안한다.

사 : 아직 입장 차이가 있어서 준비를 못했다. 2개 회사가 임원이 참석을 못해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다시 한번 시간 주면 다음 주에는 지난번보다 진전된 안으로 준비하겠다.

노 : 올해 요구안 중에 유급교육 시간할애 빼고 다 수용할줄 알았다. 부담스러운 게 없다. 다음주 교섭에서는 다 털 수 있도록 준비해주면 좋겠다. 다음주에 다 털고 임금만 가져가자.

차기 교섭 : 6/27(목) 13시, 한온시스템

*당일 15시 최저임금 투쟁 관계로 시간 조정.